

비노 “혁신안 공정하지 않으면 분당 불가피”

김동철 의원 등 비노 진영 핵심 ‘비노연합 신당론’ 제기 박지원 “친노 패권주의 독식된 분당 생각 않을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신당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친노와 비노 진영의 깊은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오는 9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노 진영의 공천 혁신안을 둘러싼 물 밑 신경전 성격도 띠고 있다.

비노 진영에서 신당론을 토대로 결속을 공고히 하고 친노와 김상곤 혁신위에 공정한 공천 룰을 제시하라는 경고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단, 비노 진영에서는 김상곤 혁신위가 공정하고 비전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분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비노 진영 핵심 인사들의 회동에서 ‘비노 연합 신당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철 의원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공정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제기한 주장”이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닌 당내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또 다른 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천 혁신안이 나올 경우, 분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친노 진영에서 혁신을 명분으로 신당 세력을 구태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일 불교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친노 패권주의가 독식을 하고, 혁신안이 공정하지 못하는 등 분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닥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 동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신당 창당의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달라”고 답했다.

반면 친노 진영에서는 정치적 명분과 대선 주자를 포함한 인물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의 신당론은 ‘그들만의 연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 밖에서 신당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은 모두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거나 과거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신당론은 사실상 정권 창출의 비전이 없는 ‘불임 정당’의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명백한 불공정 혁신안을 내놓지 않고는 신당 창당의 정치적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내 전략통으로 알려진 민병두 의원은 YTN에 출연, 신당론과 관련, “정당이 파워를 가지려면 국민이 동의할만한 새롭고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승리의 가능성이 따라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문화재단 국가기관 위상에 맞게 인원 증원, 직급도 계획대로 유지해야”

주승용 의원, 안행위서 지적



직급도 애초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취직에는 적극 공감하나 정부 인력 증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송구하다”며 “하지만, 지체대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무산된 지역 국회의원과 장차관 간담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일 결산심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와 조직 축소에 대한 문 제점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의 핵심요소인 직제개편과 인력배치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관공제 소비 지출과 연관 투자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고, 전당의 상시 고용인원 1000여명을 포함해 3만5000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한 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대로 문화전당 인원을 증원하고

문 대표 등은 아시아문화전당 시찰과 광주 U대회 개최식 관람을 한 뒤 다음날인 4일에는 수영 예선 경기 관람 및 응원을 하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과 6형제 특별전을 관람한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콩가루” “××야” ... 새누리 최고위 ‘난장판’

유승민 거취 문제 싸고 파행 ... 김무성 대표 자리 박차 이병기 靑 비서실장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 보고 ‘주목’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를 둘러싼 여당 내부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오는 6일을 유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비박(비박근혜)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두 계파 간 대충돌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총동 조정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타났다.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 사이에 고성인 오간 끝에 회의는 파행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 순서가 끝나고 나서도 “잘 전달이 안 되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 끝내”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도 김 대표의 뒤를 따라 퇴장하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에 * * 들도 아니고, 그만 해라”고 소리쳤고, 김 최고위원은 “사퇴할 이유가 있다”며 함께 퇴장했다.

한층 격렬해진 여권 내 갈등은 3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고비를 맞는다.

이번 운영위에선 유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은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결산보고를 하게 된다.

이때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끈질기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를 영두에

두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인지, 이를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발언이 적절했는지 등을 문제 삼을 태세다.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에 대한 이 실장의 답변이 나올 경우 정국은 또 요동치게 된다.

그럼에도, 유 원내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뒤로 침묵 모드를 이어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가능한 7월20일까지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친박계의 ‘6일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회의 끝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김태호 최고위원(왼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 끝내!”라고 말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라운지

김동철 “정부 7차전력계획은 현실성 낮은 무책임 행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의 ‘7차전력계획’에 대해 “실행가능성 작은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은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하고 특히 산업부 소관 중 핵심은 지역수용성이 낮은 원전 확대가 아니라 신재생사업 활성화”라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지는 실



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원 수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이번 7차계획에서도 여전히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기존 확정설비조차 예정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임내현, 노후 원전 연장 심의 ‘원안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 변경허가 등을 위한 심의에 앞서 모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허가 신청서류를 송부토록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관련 서류의 유효성을 재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에서 밝혀졌듯 지난 1월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원안위 회의가 열렸으나 이를 전까



지도 비상임위원들에게 심의·의결을 위한 허가신청서류(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되지 않은 채 열람만 허용해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논의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유난히 지치는 올여름 섬으로 갈까?

번잡한 일상 접고, 풀리는 다만의 섬으로
금오도 비렁길, 질푸른 숲소리를 듣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산토리니 & 하와이

기획

거침 없고, 깨알 같은 “팟캐스트가 좋다”
팟캐스트 6천개 시대의 의미
인기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찾아서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국내외 현장을 기다려

“수영장이 갤러리로” 프랑스 루베 라 피신스 미술관

아시아 스토리 로드-말레이시아! 몽구스족의 전통 주거, 롱하우스

장흥

동화 기개 살아있는 정남진 문학의 숲, 울의 축제

예향 초대석

‘발레 한류’ 이끈 발레 대모 김선희 교수
“호남예술제가 발레인생의 시작점이었죠”
남도의 정인들! 온 마음 바쳐 일편심 새기는 장도장 박종군

사람이 브랜드다! 서해 유성룡과 경복 안동 ‘징비’의 성찰이 절실하구나

정윤수의 스포츠인사이드! 성적 소수자 운동 앞장 서온 다이빙의 영웅 그레그 루가니스

화가의 작업실 ‘존재와 길’ 화두 삼은 ‘다원적 개미 미술가’ 이매리

내 손으로 만드는 건강한 향초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필소곳’ 기아아구의 외인 해결사 브렛 필

문화 현장 폐교, 광산, 시장에 스며든 문화향기 강원도 문화재생 공간들

죽면 푸드 휴가지에서 즐기는 바캉스 요리

‘착하지 않은 여자들’서 진지한 연기, 송재림